

대화론과 수사학: 방법론적 시론*

박우수**

차 례

1. 존재는 본질적으로 대화적이다
2. 월경(transgression) 혹은 “근접 발달 영역”의 확장
3. 상황이 의미이다
4. 양편에서 논쟁하기
(disputatio in utramque partem, dissoi logoi)

1. 존재는 본질적으로 대화적이다.

로마 사람들은 ‘갓난애’를 말을 못하는 사람(infant)이라고 정의한다. 이 경우 ‘사람’이란 단어를 쓸 수 있는지 의문이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잠재적인 인간이란 정도의 의미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리스 사람들에게 ‘백치’란 혼자 떨어져 나온 자(idiotes)를 의미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을 “정치적 동물”(zoon politikon)로 규정하여 시민 공동체인 폴리스와의 관계 안에서만 개인의 위치와 의미를 규정한 그리스인들의 사유방식의 한 단초를 엿볼 수 있다. 폴리스를 떠나 있는 개인은 그가 속한 문화 집단에 아무리 깊숙하게 관련을 맺고 있더라도 그들에게는 ‘야만인’(barbarian), 즉 그리스 말을 하지 않는 사람에 불과했다.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2살을 전후하여 본격적으로 말을 배우기 시작한다는 것은(라캉(Lacan)이 말하는 생후 18개월 정도까지의 거울의 단계) 자신 이외의 것과 관계를 맺기 시작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의식이 생겨난다는 것은 나와 나

* 이 논문은 2003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FRF-2003-074-AM0004.

**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대학 교수

이외의 것과의 분별이 생겨남을 의미한다. 셰익스피어의 표현을 빌리자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과 의식은 사랑을 통해서 생겨난다 (『소넷』 151:2). 사랑은 자신을 일종의 타자화하는 과정이며, 이 과정은 자신과 대상을 동일시하던 상상의 단계에서 벗어남을 의미한다. 자기 스스로부터의 전략을 통해서 비로소 주체가 발생한다. 주체란 어원적인 의미 그대로 자신을 아래로 내 던짐(sub-ject)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체란 본질적으로 관계규정적이다. 이런 의미에서 주체는 언어적이다.

언어가 본질적으로 차이에 근거한다면, 이 언어를 배워가는 과정은 분별의식을 갖게 됨을 의미한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비로소 수치심을 갖게 되는데, 이 수치심이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이 생겨남을 의미하며,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이 생겨난다는 것은 타인의 눈을 의식한다는 의미이다. 존 밀턴은 『잃어버린 낙원』에서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이미 뱀으로 변한 사탄의 유혹에 빠져드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 이브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드는 주된 동인은 사탄의 웅변에 대한 부러움이다. 말을 잘 한다는 것은 곧 선과 악을 분별하는 분별력과 선후 관계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둥근 원을 그리고 있다. 밀턴에 따르면 낙원으로부터 인간의 추방이란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과 다름 아니며, 전략이란 의식 안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전략 이전에 인간은 언어를, 마찬가지로 자의식을 갖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낙원이란 언어 이전에 자아와 타자가 어떠한 구분도 없이 한데 엉켜있는 통일된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러한 낙원의 인간이 과연 신을 의식할 수 있었을까하는 의문이 든다. 왜냐하면 전략을 통해서 비로소 인간은 타자의 존재와 그 필요성을 의식하게 되고, 이런 의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언어이기 때문이다. 혼돈을 의미하는 바벨탑은 전략 이후 인간의 상황을 의미하지만, 바벨탑의 언어를 통하여 인간은 타자를 의식하게 되고,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된다. 바벨은 인간에게 저주가 아니라 “행복한 전략”(felix culpa)이다. 성 어거스틴에 의하면 인간의 마음은 충동과 욕망에 의해 움직이고 흔들리며, 인간에게는 영혼의 움직임이라

고 불리는 감정의 영역인 의지가 이성보다 더 결정적이다. 따라서 욕망과 기쁨 같은 충동을 포함한 정감적인 삶이 영성의 장이 된다. 이러한 의지와 욕망의 감정이 결여된 삶은 죄보다도 못하다(이후정 139).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요한복음의 기술은 사전적인 의미에서의 말이 아니라 하나의 언어 사건을 얘기하는 것으로, 이 언어 사건이란 바로 관계 맺기의 언어를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는 표현을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라고 바꿔놓아도 좋을 것이다. 언어 없이는 체계적인 사고가 불가능하고, 언어와 사유가 동근원적이라면, 경험하고 배워간다는 것은 언어를 배우는 것과 동일한 사건이다. 언어 습득을 통해서 자아가 성립된다면, 아니 보다 정확하게 말해서 언어 안에 자아가 정초하고 있다면, 인간의 자의식이란 언어에게 말 걸기라는, 혹은 말 건네받음이라는 대화적 관계를 통해서 생겨나고 발전한다고 할 수 있다. 비고츠키(Lev Vygotsky)가 주장하듯이 우리는 모두 “의식의 부하”(load of consciousness)를 건네주고 건네받는 전통 가운데서 말을 배우며, 이 의식의 부하가 전수되는 영역인 “근접 발달 지역”(the zone of the primal development)을 얼마만큼 확장시켜 가느냐에 따라서 자아의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의 결론처럼 “사고의 발전은 개인에서 사회화로가 아니라, 사회적인 것에서 개인적인 것으로 행해진다”(Emerson 254에서 재인용). 말 건넨을 위해서 자신을 열어놓는다는 것은 자아를 타자로 객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일인칭 대명사가 고정된 의미와 대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대화적인 문맥 안에서 규정되는 가변적인 것이듯, 말을 주고받는 상황에서 자아는 상대방에게 타자로 자리매김 되기 때문이다. 주어란 말하는 문맥, 혹은 의사소통의 상황에서 결정된다. 말 건넨과 말 받기라는 대화적 관계에 자신을 열어놓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는 것이며, 이것은 바로 일종의 자폐증인 ‘백치’의 상태로 자신을 폐쇄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대화적 관계란 사회화를 의미하며, 대화적 관계를 차단함은 사회적인 적응에서 벗어남을 말한다. 사람들은 자신이

배운 단어들을 통하여 자아를 만들어가고,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선택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자신의 목소리와 내면의 언어를 형성한다 (255).

대화란 발화를 전제로 하는데, 발화란 기호체계를 매개로 해서 이루어진다. 기호란 개인 상호간의 영역에서만 의미 있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호 자체가 이미 대화적이다. 마틴 부버(Martin Buber)는 “입말”(The Word that is spoken)에서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참된 저자와 참된 대화는 둘 다 모두 언어체계에 의해서 창조한다. 서가의 먼지 자욱한 구석에서가 아니라 언어의 신선한 개울에서 말이다. ... 참된 저자는 말 상대로부터 자신의 창조적인 힘을 얻어야 한다. 진정한 대화가 없는 곳에 진정한 창조성은 있을 수 없다. 내 말인 즉 말해진 단어의 의미는 말한 사람에게 머문다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을 겨냥해서 그에게 도달한다는 사실에 뿌리박고 있다는 것이다. 말하는 사람이 능란하거나 어눌하거나 간에 단어는 듣는 사람을 창조할 수 있다. 말해진 단어는 대화 상대방들 사이의 흔들리는 공간, 내가 이름 지은 소위 “사이”라는, 상대방 어느 한 사람에게만 속하지 않는 공간에서 잉태된다. 말해진 단어는 한 지점에서 말해져 다른 지점에서 지각되지만 발화의 흔적은 사이를 통해서 지각의 지점까지 나아간다.(Perlina 17에서 재인용)

상호관계에 의해서 의미가 창조되기 때문에, 의미란 고정된 것이 아니고 말하는 사람과 응답하는 사람 사이의 제 3의 영역에서 창조된다.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며, 대화의 복원을 통해서 정서적인 공동체를 이룩하기 위함이다. 부버에게 대화란 사회적 구조의 문제로 “원자화하는 자본주의”를 넘어서 대화 공동체를 이룩하는 과업으로 이어진다. 의미란 발화의 장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마치 전기선이 양쪽 플러그에 꽂혀야만 전기가 통하는 것과 같이 일방적인 말하기나 일방적인 듣기만으로는 의미의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발화란 에너지의 흐름을 동반하는 하나의 행위이며, 기호체계는 발화의 장 안으로 들어올 때

만 비로소 의미를 지닌다. 비고츠크스가 주장하듯이 단어가 “인간 의식의 소유주”이라면(153), 기호로 체현되지 않은 경험은 발화될 수 없으며, 발화되지 않는 경험은 발화의 장에서 공유될 수 없다. 따라서 이것은 죽은 경험이다. 대화를 통한 상호적 관계란 기호를 통해서 상대방의 의식과 경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며, 이것이 대화의 상호적 관계이다. 따라서 대화란 말 건넌과 동시에 이해와 해석을 동반한다. 이해와 해석이란 곧 가치평가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이 가치평가의 과정은 발화에서 다시 말하는 사람의 어휘 선택과 배열, 어조의 변화 등 모든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기호가 인간 의식의 터전이며, 그 자체로 대화적인 성격을 지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데올로기적인 특수성은 정확하게 조직화된 개별자들 가운데서 자리 잡고, 이들 개인들의 의사소통의 수단이 됨으로써만 존재한다”(Volosinov 12). 사회적 교섭의 전 영역에 걸쳐 있는 셀 수 없이 많은 이데올로기적인 실타래들이 단어 가운데 그 효과를 등재하고 있기 때문에, 단어란 가장 뛰어난 이데올로기적인 현상이며 사회 변화의 가장 예민한 지표이다. 이 단어들을 구사하는 발화는 바로 지금 이곳에서 일어나는 현상 행위이지만, 동시에 대화에 참여한 사람들의 의식과 사회 현상을 과거에서 미래로 연결시켜주는 통시적인 사건이기도 하다. “기호와 그 사회적 상황은 떼어 버릴래야 뗄 수 없게 한데 섞여있다”(37). 따라서 발화 상황을 이해하는 것은 기호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며, 이 이해는 다음 순간 이어지는 발화에 다시 영향을 미친다. 발화의 장에서 말과 행위의 구분은 의미가 없으며, 언어란 그 자체로 행위이다. “각각의 단어는 상이한 방향성을 지닌 어세들이 충돌하고 교차하는 작은 쟁투장이다. 특정한 개인의 입 속에 있는 단어는 사회적 힘들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상호작용의 산물이다”(41). 그런데 이 단어란 사회적 힘의 지표, 즉 항상 행동이나 이데올로기에서 비롯한 의미를 내용으로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동이나 이데올로기적으로 우리와 관여하는 단어들에만 반응한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참여하는 발화자들이 문화적으로 공유하는 영역이 넓고 친숙할수록 그 이해의 폭은 넓고 깊어진다.

말이란 끊임없이 지속되는 창조적 행위이며 그 자체로 가치 판단을 수반하는 언어사건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힘을 지니며 수사적이다. 수사학이 넓은 의미에서 기호체계를 통하여 자아와 타자와의 관계 맺기를 의미한다면, 근원에 있어서 이미 단어의 차원부터 대화적인 말은 타자에로의 지향성을 통하여 자아의식과 경험을 가능하게 해주며 이를 질서 있게 만들어준다. 이것이 바로 문법의 기능이다. 문법을 통하여 경험의 표현이 가능한 것이지, 경험이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말 못하는 갓난애로부터 언어를 통하여 사회적인 성장이 가능하며, 대화의 가능성을 항상 열어놓은 개방된 자아만이 “근접 발달의 영역”을 넓혀간다. 말 건넌을 위해서 자신을 열어놓음으로써 우리는 언제나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절대적 수신자를 상정한다. 독백이나 기도의 경우에도 이 수신자는 우리의 자아를 규정하는 울타리로 존재한다. 이 절대적 수신자는 경우에 따라 신, 절대자, 양심, 도덕, 정언적 명법, 아버지의 목소리 등으로 다양하게 변이되어 나타난다. “한 개인을 정초하는 집단이 강하고 조직화되고 다양화 될수록 그 개인의 내적 세계는 더욱 생생하고 복잡할 것이다”(87). 이것들로 우리들의 근접 발달의 영역을 넓혀감으로써 우리의 자아는 확장하고 발달하며, 이로 인해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고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 위험성 또한 만만치 않다. 대화는 항상 독백으로 떨어질 위험을 안고 있다. 대화와 변증법은 같은 어원을 갖고 있지만, 끝없이 열려있는 대화와 달리 변증법은 궁극적인 통일을 목표로 한다. 즉 다양한 목소리들을 단일한 의식으로 수렴하려는 것이 변증법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지금껏 수사학에서 동원된 논증이나 논리학 모두 이러한 통합된 의식을 목표로 대화의 정지를 지향했다. 대화론의 전형인 문답법을 통해서 진리에 이르는 길을 제시했던 소크라테스 역시 그의 산파술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목표된 합일점에 이르기 위한 의도된 대화만을 실천했을 뿐이다. 키케로가 수사학과 논리, 즉 예지의 통합학문으로서 수사학의 위상에 있어서 분열과 전략을 가져온 원흉으로 소크라테스를 지목한 것도 이런 연유에서이다. 헤겔의 변증법에 있어서도 궁극적인 정신 현상은 더 이상 다다를 수 없는 막다

른 골목인 절대 정신으로 수렴되며, 이 절대 정신 안에서 대화는 사멸된다. 이들 변증법은 말의 논리를 따르는 점에 있어서 대화론과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이지만, 대화론이 목표지점을 설정하지 않고 열린 결말을 지향하는데 반해서 변증법은 대화의 종식을 그 목표로 한다. 니체가 서구의 삼단논법의 대 전제의 허구성을 지적함으로써 변증법의 근본적인 한계를 지적한 것도 이러한 문맥에서 나온 것이다. 울브레히트와 티테카의 『신수사학』 역시 아리스토텔레스 이전의 논리로 수사학의 전통을 환원하는 작업을 추구하고 있지만, 지나치게 실증적인 논증에 치우침으로써 어세나 강제와 같은 대화적인 의미를 붙잡는 데는 한계를 보인다.

대화론에서는 변증법에서 설정하는 확고한 주체의 입장과 달리, 말하는 주체와 그 주체의 권위는 의사소통 가운데서 생겨나는 생성적인 것이다. 주어로 흔히 사용되는 인칭 대명사들이 대화의 문맥과 문법적인 관계에 의해서 설정되고 의미를 지니듯이, 대화론은 말하는 주체의 권위를 미리 설정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이들이 교환하는 말의 내용, 특정한 문맥과 의사소통의 상황 안에서 만들어진다. 때로 의사소통의 과정이 문화적인 공통영역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주체를 지속적으로 타자화하는 경우에는 주어와 그 주어가 담보하는 정통성과 말의 권위, 거기에 따르는 말의 책임이 생겨나지 않는 공담(空談)으로 흐를 위험도 다분하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해서 공담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공담 역시 단어가 체현하고 있는 인간 의식이라는 소유주와 그 영역을 둘러싼 이데올로기적인 세력들의 충돌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푸틴과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끝낸 후 발표한 “우리는 서로 의견의 불일치를 보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We agreed to disagree)는 선언이 바로 이러한 경우이다.

대화란 존재가 아니라 생성이며, 에너지가 흐르는 행위이다. 이 과정에서 비로소 참다운 저자와 의미가 생겨난다. 이것은 궁극적인 수렴점을 전제하지 않는다. 대화가 궁극적인 수렴점을 전제할 때 그것은 변증법과 마찬가지로 독백으로 흐를 위험에 처한다. 독백은 대화의 죽음이다. 대화의 형식을 가장한 독백은 대화를 통한 권위

와 책임이 아니라 기성품으로서의 권위를 주장할 때 빈번하게 발생한다. 여기서 우리는 대화의 이상적인 형태를 가정해볼 수 있다. 가장 이상적인 대화란 전략 이전의 언어처럼 언어를 넘어서 대화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통일된 절대의식으로 환원되는 것이다. 바벨탑 이전의 언어 말이다. 수사적인 대화는 사실 이것을 궁극적인 지향점으로 삼는다. 설득을 넘어서 확신에 이르는 것은 의식의 결합에 의해서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화는 대화에 참여한 개인의 권위와 책임을 파괴함으로써만 가능한 것이다. 종교적 신비주의에서 이러한 주장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어떤 행태이던 권위적인 독백은 상호 생성되는 발화의 공간인 “사이”를 자기 자신의 권위로 메우려는 시도이다. 이것은 언어적 전체주의(verbal totalitarianism)이며, “쌍방적인 행동으로서의 단어”(86)를 질식사시키는 것이다. 부버 식으로 표현하자면 권위적인 독백이란 대화의 상대방을 모두 말하는 주체가 아니라 사물화 하는 것이다. 타키투스가 1세기 초엽의 로마가 공화정체에서 제국주의로 넘어감에 따라 용변이 쇠락했다고 주장하거나, 롱기누스가 영혼의 크기에서 나오는 숭고한 표현이 자유의 훼손과 더불어 얽어진다고 지적함으로써 용변과 민주주의를 연결시킨 것은 열린 공간에서 가능한 대화의 상호성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개의 발화와 그 발화를 구성하는 개별적인 요소들은 크게 보면 대화의 장을 형성하며 그 장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동시에 이들 개별적인 요소들이 대화의 방향을 결정짓기도 한다. 부분과 전체는 수렴과 포섭을 넘어서 서로를 상호 규정한다.

2. 월경(transgression) 혹은 “근접 발달 영역”의 확장

대화가 상호성을 존중하는 열린 결말을 지향한다고 해서 주체를 넘어서는 길이 단절된 것은 아니다. 대화론은 흔히 상대주의, 혹은 다원주의에만 집착함으로써 진리나 합의를 도출하는 것에는 소홀하다

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화론이 경계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한 곳으로 집중시키려는 구심력이다. 대화론은 진리를 부정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진리가 기성품으로 대화자들에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대화의 과정을 통해서 창조된다는 점이다. 이 점은 모든 발화가 동시에 가치평가를 수반한다는 앞서의 주장에 암시되어 있다. 볼로시노프가 주장하듯이 사회적 방향설정에 대한 가치 평가가 수반되지 않고는 경험이 가능할 수 없다(87). 모든 발화는 무엇보다도 가치 평가적인 방향설정이기 때문에, 의미와 가치가 동행한다. 대화가 가치를 매개하고 그 자체로 가치 체계이기 때문에 발화자들이 이 가치체계에 동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것은 앞서 권위에의 독백으로 자신의 주체성을 말살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가치에의 동참과 합의도출은 말 건넌을 향하여 자아를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인간의 모든 경험은 자신의 내면 언어 속에 기호화되어 존재한다. 그리고 그 정도로만 밖으로부터 전달 받은 언어와 접촉하게 된다. 말과 말이 접촉한다. 이 내면 언어의 문맥이 다른 사람의 발화가 받아들여지고 이해되고 평가되는 지점이다”(118). 경험이 내재화되어 있는 기호는 가치 내재적이며, 이 가치를 체현하고 있는 단어들의 접촉이 대화이다. 따라서 대화는 가치의 공유 여부에 그 생명이 달려있다. 가치가 공유될 때 말하는 주체는 상대방을 향하여 자신을 열어놓는다. 그렇지 못하면 말을 건네받는 상대방은 다음 순간 말하는 주체로 변화되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듣는 사람으로 일방적으로 남게 되고, 이렇게 되면 대화는 독백으로 떨어진다. 수사학은 그 목적의식 때문에 대화보다 덜 자유스럽지만, 둘 다 마찬가지로 “나”를 넘어서 “우리” 의식을 확보하려 한다. 우리 의식 속으로 대화를 통해서 자아가 합류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단어들에 구멍이 뚫려있기 때문이다. “구멍이 뚫린 단어”(word with a loophole)란 바흐진(Bakhtin)의 용어로 한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들의 최후의 궁극적인 의미를 바꿔놓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Morson & Emerson 160). 한 단어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이 구멍이란 일종의 탈출구로, 그림자라는 단어가 암시하듯이 한 단어의 의미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경제적 관계인 환경을

의미하며, 이 탈출구를 통해서 새로운 의미형성이 가능하다. 대화에서 단어의 의미는 대화의 문맥에서 상호적으로 결정되는데, 언어의 창조적 사용은 바로 구멍이 뚫린 단어로 인해서 가능하다. 정보의 전달과 같은 서술적인 대화, 예를 들면 수사학이나 정밀과학에서 사용되는 단어의 구멍이 비좁거나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을 정도인데 반해서, 부탁이나 간청, 제안과 같은 대화적 상황을 전제하는 발화에 사용되는 단어일수록 그림자가 길고 구멍이 크다. 권위적인 명령문에서는 수학적인 담론과 마찬가지로 구멍의 폭이 좁다. 구멍이 깊고 넓은 단어일수록 그 의미 변화의 가능성이 높고, 의사 전달의 상황에 의해서 의미가 새롭게 창조되기 때문에, 그 상황 밖의 사람들이 이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구멍이 뚫린 단어들을 통해서 자아는 스스로를 열어놓기 때문에, 이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는 발화는 한결같이 장식적이다. 장식적인 문체의 대표적인 회화체(繪畵體)를 통하여 타자화의 가능성과 우리 의식에로의 합류가 열려 있다. 대화론은 구멍에 근거한 인식론이며, 이 대화적 인식론에서는 “첫 단어도 없고 마지막 단어도 없다. 대화의 문맥들은 한정이 없다. 가장 먼 미래와 가장 먼 과거에 확장한다. 심지어 가장 먼 과거의 대화에서 태어난 의미들도 단 한번도 최종적으로 이해되지 못한다. 나중의 대화에서 계속 새로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대화의 주어진 현재 순간에 잊혀진 많은 의미군들이 있지만, 이들이 대화의 나중 과정에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게 되면 그 주어진 순간에 다시금 잊혀진 의미들은 기억될 것이다. 어느 것도 완전히 죽어버리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의미는 언젠가 귀향축제를 맞게 될 것이다”(Bakhtin, *Estetika* 373; Holquist 39에서 재인용). 구멍 뚫린 단어가 의미의 궁극적인 확정을 거부하며, 이 거부가 창조적인 의미를 열어놓는다. 대화란 이 창조적인 의미를 서로 발견하는 과정이며, 이 발견은 공유된 가치에의 참여를 동반한다. 그림자가 긴 단어들을 사용하는 회화적인 발화들은 우리 의식으로 자아를 수렴하는 구심력을 갖기도 하지만, 마찬가지로 우리 의식에 간혀있는 자아를 그곳으로부터 탈주시키는 원심력을 갖기도 한다. 앞서 우리는 대화를 전기 에너지를 지닌 장으로 표현했는데, 전기가 한 극으로

수렴된다면 그 장은 더 이상 에너지를 발산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 점으로 수렴된 대화는 더 이상 대화가 아니다. 원심력과 구심력의 긴장에 의해서 대화는 지속된다. 나의 말은 반쯤은, 아니 그 이상이 남의 것이다.

3. 상황이 의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연설문의 내용에 따라서 그 종류를 분류했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연설의 상황에 따른 분류가 더 정확하다. 상황이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 자체가 이미 내용이다. 의사소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무한대이고, 그때그때의 발화는 반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독자적이고 창조적이지만, 그 상황은 “말의 장르”로 크게 묶여질 수 있다. 말의 장르란 상황의 유형에 따라서 어떠한 종류의 의미론적 선택이 행해지느냐를 지칭하는 헐리데이(Halliday)의 등기(register)와 같은 개념이다. 이들 등기부들이 상황의 유형을 결정하는 요소들에 따라 단어, 문법, 의미 및 문맥의 특성들을 어떤 식으로 조합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규범적으로 정의한다(Thibault 105). 명령, 진술, 질문, 잠재적 질문들인 권유나 부탁, 제안들은 한결같이 처한 상황으로 대화의 종류와 성격의 방향을 잡는다. “글이 되었건 말이 되었건, 언어란 그것이 처한 다양한 문맥을 표현하는 영원한 잡종이다”(Schuster 591). 사건의 우발적인 연속을 플롯으로 삼고 있는 고대의 로맨스가 중세의 무용담, 19세기의 역사소설, 20세기 공상과학 소설, 혹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게임으로 통시적으로 반복해서 나타나지만 그 기본 골격은 유지하고 있듯이, 발화의 상황 역시 통시적인 관계를 반영하며 반복적인 대화의 틀을 어느 정도 공시적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구멍 뚫린 단어들이 탈주의 공간을 열어주듯이, 말의 장르 역시 대화의 과정에서 창조적으로 변이될 수 있다. 주어진 상황이 복잡할수록 말의 장르는 뒤섞이게 되고, 원래 출발했던 주어진 장르의 틀을 벗어나기 쉽다. 상황 역시 주어진 관계에서 벗어나는 만큼 그 자체로 이미

대화적이다. 삶의 모든 경험은 어떤 특별한 입장에서 경험되는 만큼, 어떤 입장에 처해 있느냐하는 상황은 관계의 반영이며, 그 자체가 의미이다. 대화는 어떤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상황이다. 관계적 상황을 떠나서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데리다의 표현을 변용하자면 상황밖에 아무 것도 없다. 야콥슨의 담화 분석에 따르면 메시지는 발화자에서 수신자로 전달되는 정태적이고 고정된 것이다. 수신자는 발화자가 사용하는 약호를 사용하여 이를 수동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그친다. 그러나 대화론에서 메시지는 대화에 참여한 사람들의 상호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변형되는 상황적인 것이다. 띠보(Thibault)가 주장하듯이 역할이나 사회적 정체성 등은 대화를 형성하고 있는 담화 행위의 과정에서 능동적으로 생산되는 것들이다. 대화적인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대화의 구조 역시 탈 자동화된다(Thibault 104). 여기서 기호화되지 않는 침묵이나 발화되지 않은 답변도 의미를 지닌다. 최근 한국 영화 『황산벌』에 나오는 “거시기”란 표현을 영어로 어떻게 옮기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있었다. 상황에 따라서 의미가 정해질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이다. 이청준의 『당신들의 천국』을 영역한 사람이 말없음표(“.....”)를 무심히 그대로 옮겨 놓았더니 미국 쪽 공역자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기호냐고 묻고서는 설명을 해주었더니 배꼽을 잡고 웃더라는 일화를 이 청준 자신이 전한다. 그에게는 말없음이야 말로 웅변보다 더한 침묵이다.

우리는 그 말없음표로 하여 소설 진행상 호흡 조절의 효과와 말없이 듣고 있는 사람의 생각이나 모습을 유추해볼 수 있는 유보적인 상상공간의 역할 이외에도, 여러 가지 분명한 침묵의 말소리를 읽어낼 수가 있는 것이다. <자네 말을 잘 듣고 있네..., 난 아직도 별 할 말이 없네..., 자네가 그냥 계속해 나가게...> 등등. 따라서 우리는 “.....!”나 “.....?”식의 침묵의 표현에서도 <저런! 그렇던가? 아뵘싸! 놀랐다... 혹은 무슨 소리지...? 왜?> 따위의 내면의식의 상태를 경우에 따라 알맞게 읽어낼 수가 있는 것이다. 또한 그것은 말을 듣는 사람의 목시적 형태의 기호 기능도 겸하고 있는 것이다.(이청준 131)

침묵의 언어와 같은 상황 의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발화자들 사이의 관계이다. 이 관계를 드러내는 것이 특히 어세이다. 어세는 대화자들의 사회경제적 신분 관계뿐만 아니라 이데올로기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어휘 선택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어세에 영향을 미치고, 상대방의 어세는 다시 나의 어세에 반응하는 상호적인 장 안에서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도스토예프스키는 그의 『작가 일기』에서 모스크바의 술 취한 다섯 명의 일꾼들이 한결같이 단 한마디의 욕설로 모든 의사표현을 대신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언어적인 범주로 환원될 수 없는 어조가 의사소통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일화를 적고 있다. 어세 역시 침묵의 표현과 마찬가지로 상황에 의해서 의미가 결정된다. 이런 의미에서 대화와 마찬가지로 상황 자체는 이미 이중의 목소리를 지닌, 쌍방향의 잠재적인 행위이다. 볼로시노프가 주장하듯이 “지금 몇 시냐?”하는 간단한 질문도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로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 그는 발화 전체의 의미를 주제라 지칭해서, 사전적인 의미와 주제를 구분한다. 의미란 주제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적인 장치이며, 구체적인 주제 안에서 의미를 갖게 되는 가능성, 즉 잠재성만을 지닌다(Volosinov 99-100). 사전적인 의미는 엄밀한 의미에서 의미가 아니며, 이것이 대화의 장으로 걸어 나올 때 비로소 의미가 된다. 언어적인 의사소통은 구체적인 상황과의 연계를 떠나서 이해되고 설명될 수 없다. 단어의 의미는 전적으로 문맥에 의해서 결정된다.

의미가 의사소통의 상황과 문맥에 의해서 결정되며, 상황 의미가 말의 예법과 문체 등을 결정한다는 것은 수사학의 오랜 전통에서 중요한 점이다. 소피스트들은 상황의 가변성과 일회성을 주장함으로써 형식논리를 뒤집었으며, 문화적 상대주의를 주장했다. 20세기 들어서도 케네스 버크(Kenneth Burke)는 수사적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함으로써 담론을 야기한 동기를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답변이 아무리 다양하고 복잡해도 그 답변을 유도한 질문에 의해서 어느 정도 형식과 내용이 제약을 받듯이, 담론의 상황은 담론의 형

식과 내용을 담론의 여러 차원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마련이다. 담론을 발생시키는 상황이란 그 자체가 하나의 문제이며, 이것이 야기하는 담론은 그 상황에 대한 일종의 문제 풀이의 성격을 지닌다. 로이드 비쳐(Lloyd Bitzer)의 정의에 따르면 수사적 상황이란 “실재적이거나 잠재적인 위급한 처지를 제시하는 일련의 복합적인 사람, 사건, 대상 및 관계를 의미한다. 이 상황에 도입된 담론을 통해서 주어진 위급한 처지에 중요한 변형을 초래할 수 있는 인간의 행동과 결정에 제약을 가져오고, 이를 통해서 그 상황이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 담론이 만들어지고 제시되기 전에 어떠한 수사적 상황이나 이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첫째는 위급한 처지이고, 둘째는 행동과 결정에 있어서 제약을 받는 청중이고, 셋째는 말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청중에게도 관계될 수 있는 제약들이다”(Bitzer 336). 여기서 제약이란 말하는 사람과 청중이 공유하거나 조절을 필요로 하는 일련의 신념이나 태도, 사실, 전통, 이미지 등 문화적 공간을 포함한다. 기술적인 증명이나 비기술적인 증명, 개인적인 문체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여기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처럼, 비쳐가 말하는 수사적 상황이란 말하는 사람과 청중 사이의 관계를 마지막으로 거론함으로써, 이들의 관계 자체를 하나의 상황이자 의미로 중시하는 대화론의 상황과 약간의 거리가 있다. 다시 말해서 대화론에서 그림과 배경을 동등하게 취급한다면, 비쳐의 수사적 상황이란 여전히 그림을 돋보이게 만들어 주는 배경으로 머물고 있다. 대화론에서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은 상호적으로 규정되며, 이미 절반쯤은 서로가 상대방의 이질적인 목소리를 자신 안에 내면화함으로써 일종의 공존 상태를 유지한다. 대화의 장 안에서 대화의 모든 요소들은 동등한 자장을 지니고 있다.

존재한다는 것은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상호 작용이 언어의 기본 실체라고 주장하는 것이 대화론의 핵심이다. 언어란 주관적이며 심리적인 동요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를 반영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언어 행위란 엄밀한 의미에서 형용 모순이다. 대화란 자신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닌 채 타자의 영역 안으로 살아 들어가는 것이다. 대화는 민주적인 과정이며, 이 상호성을 통하여 참된 의미와 주어의 권위를 확보한다. 여기서는 진리 역시 상호적이며, 대화의 과정에서 발견되는 성질의 것이다. 따라서 의사소통의 상황을 떠나서 존재하는 진리는 의미가 없다. “진리란 개인의 머리 안에서 태어나거나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진리를 찾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의 대화적인 상호 관계의 과정에서 태어난다”(Bakhtin, 『도스토예프스키 시학의 문제점』 110; Morson & Emerson 60에서 재인용). “언어적인 의사소통의 조건, 그 형식과 구분 방법 등은 주어진 시기의 사회 경제적 선결 조건들에 의해서 결정된다”(Volosiniv 123)는 상황의미를 주장하는 대화론은, 변증법이 대화를 종식하고 체계화한다고 경계한다. 변증법은 대화의 추상적인 산물이며, 독백적인 세계관의 산물이다. 변증법은 기호학과 마찬가지로 문맥을 살해한다(Morson & Emerson 57). 대화론은 수사학보다 넓은 개념이지만, 언어의 대화적 성격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다분히 수사적이다. 언어의 이런 대화적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내는 수사적 형식이 양편에서 논쟁하기일 것이다.

4. 양편에서 논쟁하기(disputatio in utramque partem, dissioloi)

에라스무스는 『결혼을 칭찬하는 권고문 연습』(*Decalmatio in genere suasoria de laude matrimonii*, 1518)이라는 편지글과 이 편지를 포함하고 있는 『편지쓰기에 관해서』(*De conscribendis epistolis*, 1522)에서 수사학과 변증법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어떠한 문제나 논증이나 진술은 항상 그 반대되는 문제나 논증이나 진술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변증법이나 수사학은 한결같이 양편에서 논쟁하기의 기술이지만, 수사학과 달리 변증법은 말하는 사람과 청중, 상황 등을 무시함으로써 의미란 문맥에 의해서 창조된다는 사실을 무시한다고 주장한다(Sloan 164). 로마 시대의 수사교육에서

중심을 차지한 이 양편에서 논쟁하기는 폐쇄된 공간에서의 닫힌 교육이라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고정된 것이 아니라 발견의 산물로 간주한 점에서 매우 대화적이다. 고르기아스(Gorgias)의 『헬렌의 찬양』과 같은 연설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소피스트 수사학의 실천적 근간을 형성하고 있던 양편에서 논쟁하기의 기술은 중세에 와서 신학적인 문제에 주로 국한하여 형식 논리에 기초한 변증법으로 고착화되었다. 이곳에서 진리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증명이나 확인에 불과했다.

그러나 종교개혁은 기존의 진리 인식을 흔들어놓았으며, 진리에 대한 회의주의의 등장과 더불어 르네상스 시대에 와서 다시 소피스트들의 기능을 회복한다.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들의 업적은 스콜라 철학자들의 논쟁을 대론으로 대치한 것이다. 대상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것으로 언어의 의미를 파악함으로써, 이제 진리를 포함한 의미는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고 상황에 의해서 창조되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수사학을 예지라는 통합 학문으로 기획한 키케로(Cicero) 역시 수사학의 본질을 찬, 반 양편에서 논쟁하기로 보았다. 그는 흥미롭게도 논증과 배열, 판단과 같은 논리적인 요소와 표현의 기술을 모두 아우르는 예지의 학문으로서 수사학을 표현의 기술로 국한시켜 수사학의 전략을 가져온 원흉으로 소크라테스를 꼽는다. 르네상스 시대에 이태리에서 처음으로 인쇄된 책이 키케로의 『웅변가에 관해서』라는 사실에서 엿볼 수 있듯이, 에라스무스나 로렌조 발라(Lorenzo Valla)같은 인문주의자들은 키케로의 수사적 전통, 즉 수사학에서 오래 동안 행해져온 양편에서 논쟁하기의 기술을 되살리는 데에 관심을 기울였다. 이것은 수사학과 논리학을 동시에 가르치려는 교육적인 목적에 쉽게 부합하는 것이었다.

양편에서 논쟁하기는 공격과 방어외 형식을 취하게 되며, 이 때문에 수사적 배열은 흔히 전장에서 군사들의 배치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결정적인 증명이나 반박을 말의 진행과정에서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전쟁에서 병력 배치와 같은 무게를 지닌다. 퀸틸리언(Quintilian)은 대론이야말로 거의 전적으로 유일한 발견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에라스무스는 이러한 전통을 이어받고 있다. 그는 『편지쓰기에 관해서』에서 이렇게 주장한다.

학생들이 방금 전에 제안했던 것에 반대하는 논박을 연습한다면 그들의 발견술은 개선될 것이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늘 높이 칭찬했던 것을 강력하게 비난하며 심연 속으로 내동댕이쳐버려라. 아니면 먼저 어떤 것을 옹호한 다음에 그것을 회피하는 방법을 다그쳐 보아라.(Sloan 167에서 재인용)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르네상스 시대에 유행했던 양편에서 논쟁하기의 기술은 수사학과 논리학을 다시 결합시켜 발견의 기술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려고 시도했다. 수사학과 논쟁의 기술을 결합시키려는 이러한 노력들은, 수사학과 논리의 영역을 아이러니컬하게도 교육적인 목적에서 분리시킨 라무스의 영향, 진실성을 강조한 낭만주의에서 수사학의 폄하 등으로 인해 현대에 와서 다시금 희미해져버리고 말았다. 논쟁이 수사학에서 힘을 잃은 것과 반비례해서 문체와 장식이 수사학에서 상대적으로 힘을 획득한 것은 병행하는 현상이다. 논증의 기술을 강조하는 페렐만 역시 보편적인 청중을 상정함으로써 상황의 논리와 의미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대화론으로서 양편에서 논쟁하기의 기술에 다시 주목함으로써 발견으로서의 수사학, 이성의 수사학은 끊임없이 유목민적 사유를 강조하는 시대의 정신을 붙잡을 수 있을 것이다. 수사학은 대화론의 정신을 복원하고 거기에 충실함으로써 동근원적인 변증법과 새로운 대화를 시도할 수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해서 표현의 기술에 국한되지 않고 정신의 운동을 읽어내는 논증과 발견의 수사학으로서 원래의 위치를 복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대화론은 끊임없이 경계를 요한다. 실제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대화적 상황은 나이, 인종, 성차, 문화, 계급, 사회적 위상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힘의 경쟁관계 안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대화적 관계는 또 다른 지배와 복종을 조장하는 교묘하게 은폐된 엘리트주의로 변질될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한다. 이상적인 대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동등한 상호관계를 전제로 한

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인간의 대화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제 대화는 인간의 생존전략을 위해서 자연계와 인간의 대화라고 하는 의식의 개방성을 그 어느 때 보다도 강하게 요구한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는 한 대화론은 은폐된 폭력의 한 형태로 전락할 위험이 다분하다.

주제어 : 대화론, 수사적 상황, 양편에서 논쟁하기, 변증법, 수사학, 월경

인용 문헌

- 이청준. 『말없음표의 속말들』. 서울: 나남, 1986.
- 이후정. 『어거스틴의 신비주의』. 『오늘의 어거스틴』 양 명수 외
지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7. 121-149쪽.
- Aristotle. *The Art of Rhetoric*. Trans. H. C. Lawson-Tancred.
Harmondsworth: Penguin, 1991.
- Bitzer, Lloyd. "The Rhetorical Situation." *Contemporary
Theories of Rhetoric*. Ed. Richard L. Johannesen. New
York: Harper & Row, 1971. 381-393.
- Buber, Martin. *Paths in Utopia*. Boston: Beacon, 1960.
- Emerson, Caryl. "The Outer Word and Inner Speech: Bakhtin,
Vygotsky, and the Internalization of Language." *Critical
Inquiry* 10 (1983): 245-264.
- Erasmus, Desiderius. *Collected Works of Erasmus*. Vols. 24 &
25. Toronto: U of Toronto P, 1978.
- Hand, Sean, ed. *The Levinas Reader*. Oxford: Blackwell,
1989.
- Holquist, Michael. *Dialogism: Bakhtin and his World*. London:
Routledge, 1990.
- Levinas, Emmanuel. *De Dieu Qui Vient A L'Idee*. Paris: J.
Vrin, 1992.
- Marrou. H. I. *A History of Education in Antiquity*. Trans.
George Lamb. Madison: U of Wisconsin P, 1956.
- Morson, Gary & Caryl Emerson. *Mikhail Bakhtin: Creation of
a Prosaics*. Stanford: Stanford UP, 1990.
- Perlina, Nina. "Mikhail Bakhtin and Martin Buber: Problems of
Dialogic Imagination." *Studies in Twentieth Century
Literature* 9 (1984): 94-123.
- Schuster, Charles I. "Mikhail Bakhtin as Rhetorical Theorist."
College English 47 (1985): 594-607.

- Sloan, Thomas, ed. *Encyclopedia of Rhetoric*. Oxford: Oxford UP, 2001.
- Thibault, Paul. "Narrative Discourse as a Multiple-level System of Communication: Some Theoretical Proposals Concerning Bakhtin's Dialogic Principle." *Studies in Twentieth Century Literature* 9 (1984): 89-117.
- Volosinov, V. N. *Marxism and the Philosophy of Language*. Trans. Ladislav Matejka & I. R. Titunik. Cambridge, Mass.: Harvard UP, 1986.

Abstract

Dialogism and Rhetoric: A Methodological Essay

Woo Soo Park

This essay attempts to define and categorize dialogism as a verbal art including rhetoric and dialectic. The dialogic practice is open-ended and personal, while rhetoric is topical and decisive. When dialectic is teleological in its pursuit of ratio and truth, and henceforth hegemonic in the heuristic process of exclusion, dialogism is interactive and relative, faithfully reflecting the very nature of existence itself. As personal pronouns are positional and relative in their function and meaning, so the self is not a substance but a relation. Every speaking "I" situates itself in the space of the "in-between" in relation to the others such as "you, s/he, we, they, it." This communicative space is the very space of dialogic practice in which we transcend the private, "idiotic" prisonhouse of the self. Dialogism provides us with the "third realm" in which every existence meets with others and transcends itself as well.

The very form of dialogism *par excellence* is the *disputatio* in *utramquem partem*, or *dissoi logoi*. This traditional formula of rhetorical debate is open-ended in its non-decidability and multiple perspectives of a situation and an issue under consideration. Dialogism is both ecological and egalitarian at once with its epistemological attention to non-speaking subalterns and natural things. However, since every verbal situation is infected with power, dialogism is vulnerable to

the trapping obstacles on the way such as racism, gender difference, social status, class and cultural background. This means that the dialogic practice can be abused as a hidden and very sophisticated way of physical violence, as is often seen in the world of real politics. Nonetheless, dialogism is the only possible alternative open to us at present. It provides us with an intersubjective meeting space, making us partially forget the avatar of subjectivity.

key words : dialogism, rhetorical situation, *dissoiloi*, dialectic, rhetoric, transgression